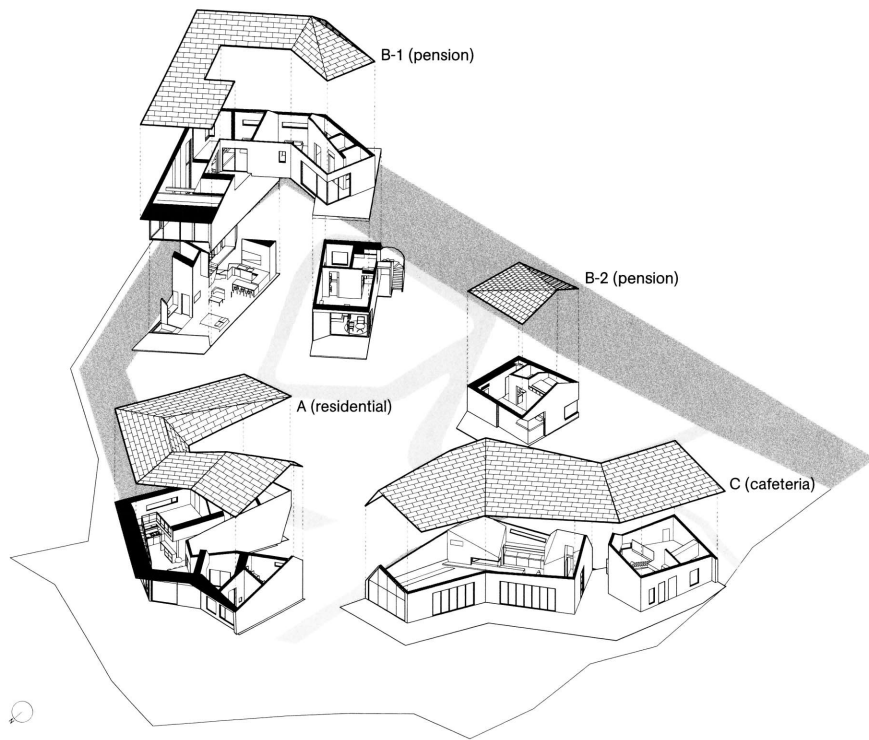


L.O.G. (Lay On the Ground)

로그

이민수 + 안기현 + 에이앤엘스튜디오

Lee Minsoo + Ahn Keehyun + AnLstudio



Axonometric site plan

자료제공 에이앤엘스튜디오 | 사진 신경섭

materials provided by AnLstudio | photographed by Kyungsub Shin

설계: 이민수(한양대학교)+안기현(한양대학교)+에이앤엘스튜디오(신민재) **설계담당:** 최성식, 박형국, 권효운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49-1, 49-17

용도: 단독주택(A동), 펜션(B동), 카페(C동) **대지면적:** 2,971m² **건축면적:** 508m² **연면적:** 542m² **규모:** 지상 2층 **높이:** 8.5m **주차:** 8대 **건폐율:** 17% **용적률:** 18%

구조: 경량목구조, 철골구조 **외부 마감:** 라임스톤, 멀바우, 산화스테인레스, 스테코플렉스 **내부 마감:** 도장, 타일, 원목마루 **구조설계:** 프레이저 벨리 엔지니어링

기계·전기설계: 정연ENG **시공:** TCM글로벌 **설계기간:** 2013. 8. ~ 2014. 8. **시공기간:** 2014. 10. ~ 2016. 3. **건축주:** 윤순환, 김보환

Architect: Lee Minsoo (Hanyang Univ.) + Ahn Keehyun (Hanyang Univ.) + AnLstudio (Shin Minjae) **Design team:** Choi Sungsik, Park Hyungkook, Kwon Hyoyoon
Location: 49-1, 49-17 Jangjeon-ri, Aewol-eub, Jeju-si, Jeju, Korea **Programme:** residential (building A), pension (building B), cafe (building C) **Site area:** 2,971m²
Building area: 508m² **Gross floor area:** 542m² **Building scope:** 2F **Height:** 8.5m **Parking:** 8 **Building to land ratio:** 17% **Floor area ratio:** 18% **Structure:** timber structure & steel **Exterior finishing:** lime stone, mulbow, stainless steel plate **Interior finishing:** painting, tile, wood flooring **Structural engineer:** Fraser Valley ENG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 Jeongyeon ENG **Construction:** TCM global **Design period:** Aug. 2013 – Aug. 2014 **Construction period:** Oct. 2014 – Mar. 2016 **Client:** Yoon Soonwhang, Kim Bowhan

이민수는 현재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다. 국민대학교와 뉴욕대학교 티쉬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뉴욕과 보스턴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한 후 에이앤엘스튜디오를 설립하였다. 오션스코프로 2010레드닷어워드 베스트오브베스트를 수상하였다. **안기현**은 현재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다. 한양대학교와 미국 버클리대학교 건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본인이 설립한 에이앤엘스튜디오에서 실험적이고 다양한 스케일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신민재**는 에이앤엘스튜디오 대표이며,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작은 아틀리에와 대규모 사무소에서 건축과 도시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대표작으로 윤중동 POP하우스, 경산 동이재, 오픈앨리 등이 있다.

Lee Minsoo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college of design, Hanyang University. After graduation of TISCH in NYU & Kookmin University, he experienced in diverse field as a designer. As co-founder AnLstudio, he was the recipient of the Red Dot Design Award 2010 (Best of Best).

Ahn Keehyun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Hanyang University. After his education in Hanyang and U.C Berkeley, he co-founded AnLstudio for investigating architectural experimentation as well as its adaptation in various scale.

Shin Minjae is the principal of AnLstudio as the Korean licensed architect and an adjunct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Kookmin University. He had various experience through small Atelier to corporate architectural firm. His recent work is POP House, Dongjijae and Openalley.



It is the direction in which buildings will face that architects have to decide above all, on a site that commands a fine view towards the seaside, thanks to its location on the hill in spite of the distance. When the sea bears due north of a north-facing slope, all buildings face towards the north.

건축가는 땅 위에 무엇을 놓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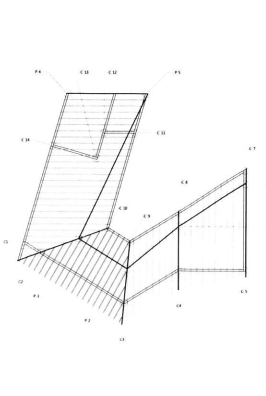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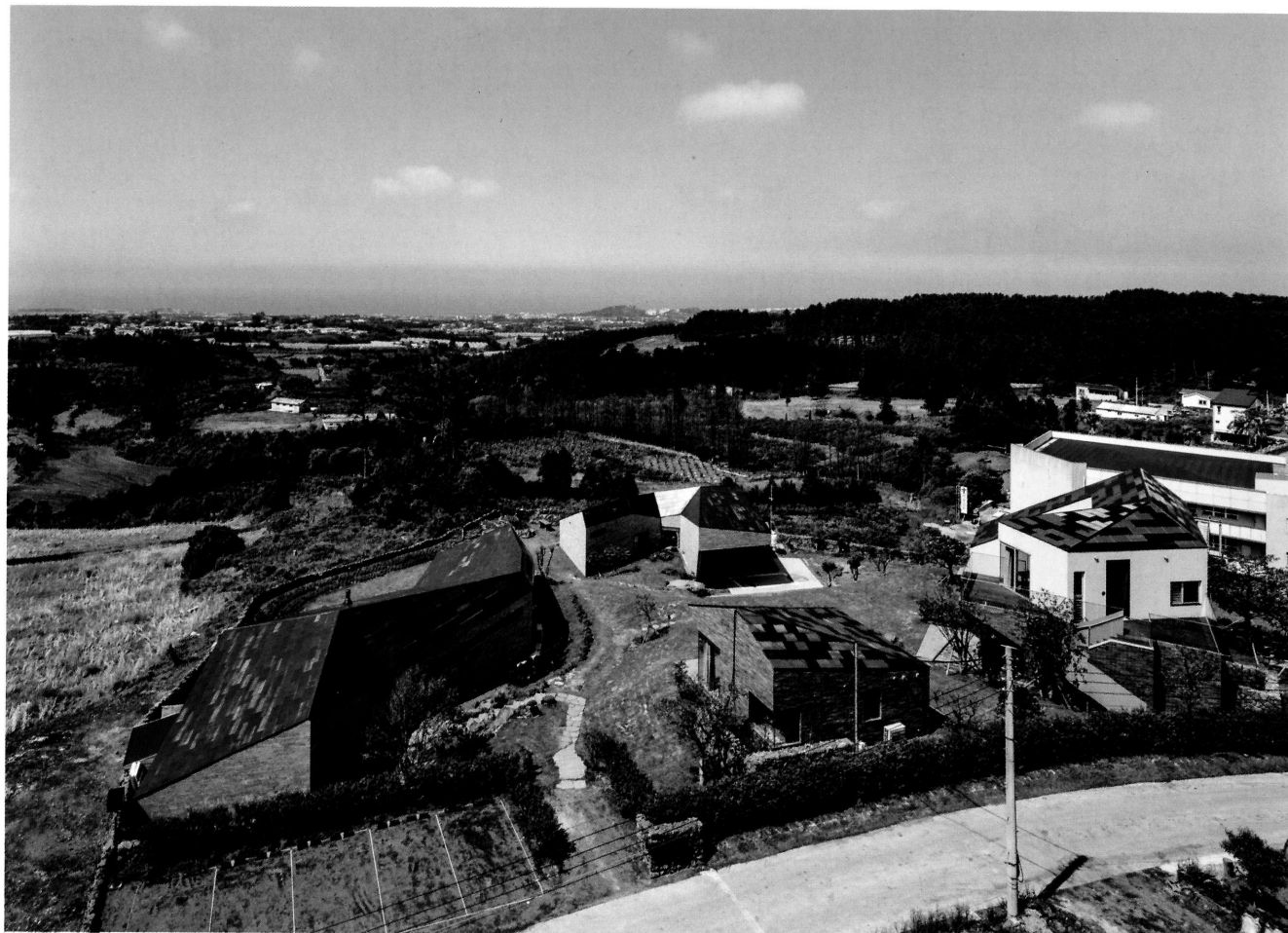
박정현(마티 편집장)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노선으로 꼽히는 서울-제주 간 항공편에 요즘 건축가가 탑승해 있을 확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아마 지금도 몇 명쯤은 비행 중이지 않을까. 제주에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 하나 없으면 건축가로 체면이 서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스타건축가에서 젊은 건축가까지 제주는 무척 중요한 이정투쟁의 장소가 되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제주에서 건축의 관건은 자연과의 관계 설정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자연과 건축의 승부는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건축가들이 취하는 태도와 전략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 건축을 자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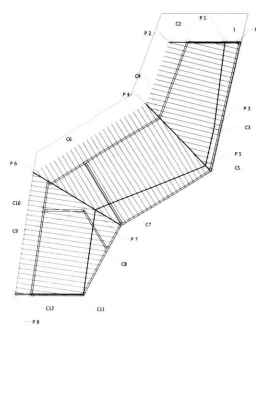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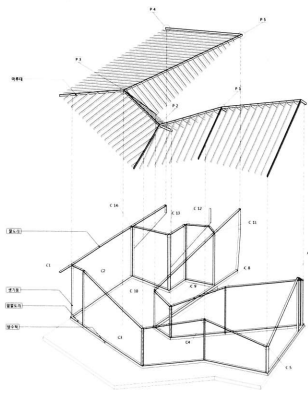
바라보고 느끼는 장치로 삼는 것이다. 안도 타다오가 섭지코지 해변에 존재감을 한껏 뽐내며 세운 글라스하우스조차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장치 이상이 아니다. 해변과 오름에 스스로의 존재를 양보하는 것, 제주도를 찾은 건축가들이 따르는 암묵적인 윤리적, 미학적 당위다. 그만큼 제주의 자연은 압도적이다. 그렇다고 건축의 존재를 땅과 자연에 온전히 내어줄 수는 없다. 한국에서 기후와 자연환경이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인 제주는 서울과는 다른 삶이 가능한 곳이라는 판타지를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자극한다. 대기업 사옥, 박물관, 호텔, 주택 등 크고 작은 프로젝트는 도시와는 다른 꿈을 꾸고, 자본은 건축을 통해 이 꿈을 증폭시킨다. 제주에 호텔이나 펜션, 주택을 짓는 일은 자본과 여행이 빛나는 거대한 꿈의 공장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주택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펜션은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감각을 일깨우지 않으면 실패다. 이 때문에 펜션이란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던 시절부터 건축가들의 작업 목록에도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규암의 생각 속의 집(2006), 문훈의 락잇수다(2010), 정의엽의 어그리나드(2012), 곽희수의 모켄펜션(2012)과 유리트리트(2016)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의 작업은 평면의 섬세한 조율, 낯선 재료, 과감한 형태와 색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 현대건축에서 드문 과장과 낯설음을 용인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젊은 건축가상 수상과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팀 참여 등으로 2016년을 자신들의 해로 만들고 있는 에이앤엘스튜디오의 제주 프로젝트 로그(L.O.G.)가 처한 환경과 취한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에 정착하기로 한 건축주의 주택과 펜션, 카페를 대지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과제다. 해변과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지만 구릉지여서 해변을 조망할 수 있는 대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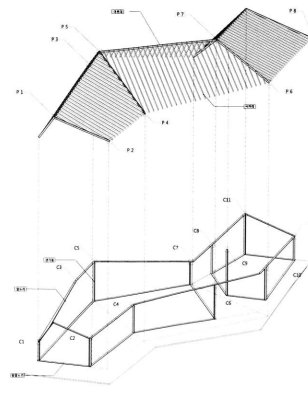
건축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좌향이다. 바다는 정북 방향에 있고 남쪽이 더 높은 대지에서 모든 건물은 북을 향해 앉는다. 채광보다 좌향이 우선인 이곳에서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민은 4개 동의 위치를 정하는 일, 대지 앞쪽의 소나무 군락지를 피해 창을 낼 수 있는 자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여기서도 건물은 시선의 장치다. 대지 내의 고저 차와 건물 사이를 조절해 모든 객실과 카페에서 제각기 다른 프레임으로 바다를 바라보게 한다. 건물 사이의 틈, 앞 건물의 지붕, 대지 앞의 구릉과 숲과 바다에 이르는 시선에 깊이를 더하는 틀이 되기에 충분하다. 로그가 건축을 통해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에 톨을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애월읍 장전리에서 건축을 짓는 이라면 열에 아홉이 취하는 방법일 것이고, 대개는 원하는 효과를 얻는 데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이 펜션의 성패는 어디서 갈릴까?



Residential building roof timber structure



Cafeteria building roof timber structure



The architects keep this in consideration in order to decide the layout of four buildings and to control the position of windows away from the pine forest in front of the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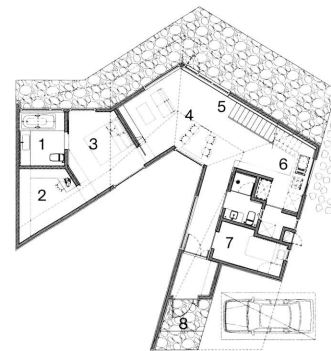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륨이라고 불렀다. 볼륨으로 내부를 조직한 뒤 팽팽한 면으로 외관을 만드는 것이 모더니스트의 방법이었다. 요소나 표면의 이미지와 상징으로 근대건축을 넘어서려고 한 일련의 시도(포스트모던이라고 불렀다)가 별무소득으로 끝나고 난 뒤, 관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축가들의 공격 대상은 바닥판이었다. 더 정확히는 도미노 프레임의 적용되는 수평판이었다. 근대건축의 조건을 재검토한 것이다. 바닥의 위계와 프로그램을 뒤섞은 뒤 병치한 램 콜라주를 필두로 바닥과 평면은 건축을 가능케 하는 발생기라는 영예로운 자리에서 물러났다. 바닥의 구속에서 벗어나자 2차원 면이 아니라 3차원 부피가 건축의 단위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였다. FOA는 바닥(ground)과 인벨럽(envelop)을 조작해내는 것에서 출발하는 자신의 건축 계통발생도를 그려보이기도 했다. 한편 형태는 한동안 한국 건축계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였다. 추상적인 공간과 정신을 강조하는 일군의 건축가들에게 형태는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난 뒤 생기는 결과물이었다. 반면 에이앤엘스튜디오는 형태, 속이 꽉 차 있다고 해도 좋을 육면체 덩어리에서 출발한다. 이 육면체를 꺾고 잘라내 자신들이 원하는 대략의 형태를 구상해낸 뒤 그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넣는 것이 방법론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원하는 형태가 대지와 프로그램 이전에 있다. 제주 프로젝트에서도 이를 관찰하기 위한 노력을 곳곳에서 읽을 수 있고 결과도 상당히 성공적이다. 외관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면들의 꺾임과 접합은 되풀이되고 이는 건축 전체의 인상을 일관되게 만든다. 물론 목구조로 구현하면서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띄지만 의도는 분명하다. 아직 이들의 방법에서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문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선호와 취향에 머물러 있다. 쌓여갈 작업과 함께 취향을 입장과 이론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것, 이것이 과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하나는 아닐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높은 예약률이, 어떤 이에게는 몸이 닿는 곳의 촉감과 디테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건축'의 가치를 묻고 답하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건축'의 입장이다. 프로그램, 대지 조건, 예산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취를 묻는 일은 건축의 자율성이란 것이 가능할 듯해 보였던 시절의 호기로운 질문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요소를 '괄호 치는' 일이야말로 미적 경험과 판단이 작동하는 조건이라는 것 역시 부인하기 힘들다. 자연과 바다, 땅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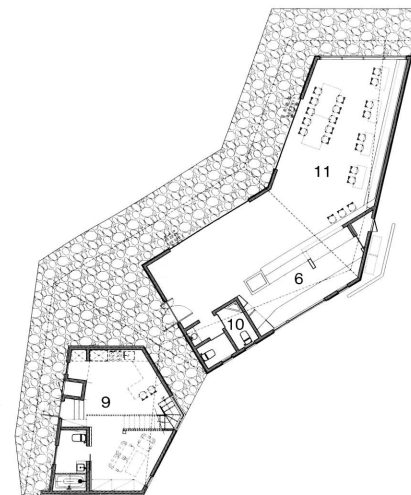
접어놓고 같이 생각해보직한 이유는 형태다. 꺾인 면과 접합 면이 난무하고 박공의 경사도 제각각이다. 비정형 건축이 쏟아지는 요즘이 정도가 무슨 대수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경량목구조다. 건축주가 제시한 조건이었다는 목구조는 이 건물이 처한 상황을 짐작케 하는 한 가지 지표이지만(2010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집짓기 열풍과 목구조의 상관관계), 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자. 목구조로 구현하기에 불리한 형태를 굳이 밀어붙인 것이다. 더구나 에이앤엘스튜디오는 최초 프로젝트였던 2009년 오슬로국립박물관 계획안에서부터 이벤트를 위한 임시구조물에

이르기까지 꺾이고 예각으로 잘려나간 입방체를 예외없이 되풀이한다. 장방형 입방체인 컨테이너가 형태이자 모듈이자 재료였던 오션스코프(2010)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를 추구했다. 말하자면 이 모종의 형태는 건축가들이 놓고 싶지 않은 핵심이다. "땅 위에 놓았다"고 소박하게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놓았다. 에이앤엘스튜디오는 바닥이나 평면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최초의 조작 대상은 직육면체다. 같은 3차원이지만 공간이나 볼륨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르 코르뷔지에는 비누거품처럼 안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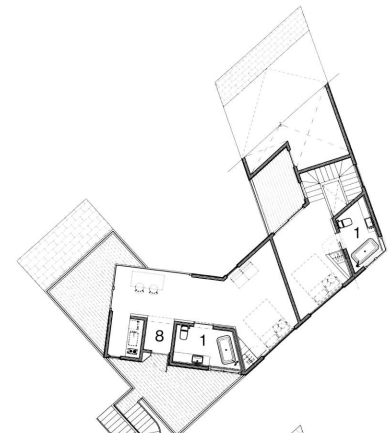
The bending and joining of planes is repeated not only outside but also inside, which makes the whole project consistent in approach and aspect. Though it is regrettable that some details are not fully solved by the wooden structure, the architects' intention can be clearly understood.
(top) Residential building and (middle and bottom) cafeteria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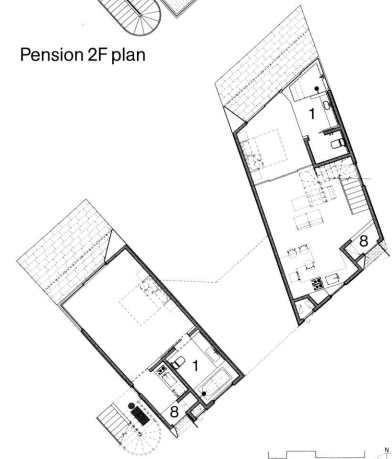
Residential 1F plan



Cafeteria 1F plan



Pension 2F plan



Pension 1F plan



- | | |
|--------------------|---------------|
| 1. bathroom | 7. guest room |
| 2. dress room | 8. entrance |
| 3. master bedroom | 9. office |
| 4. living & dining | 10. toilet |
| 5. attic | 11. cafeteria |
| 6. kitchen | |

What Architects Place on the Ground

Park Junghyun
(editor-in-chief, Matibook)

The passenger list of Seoul – Jeju flights, one of the busiest airlines in the world, is more likely to include architects than ever before. I assume some are flying right at this very moment. In order to save face, architects have to carry out at least one project in Jeju. Not only starchitects, but also the younger architects regard Jeju as a very important place in which to cement their fame. As you might expect, how to relate architecture to nature is absolutely crucial in Jeju. However, it is rare to

observe a competition between nature and architecture. Most architects tend to adopt a similar attitude and strategy. They decide to accept nature by regarding architecture as a device to view and appreciate nature. Even the Glass House at SeobjiKoji Beach, designed to exist as a landmark by Ando Tadao, is no more than a device to extract a view of the outside from the inside. Giving way to beaches and volcanic cones, rather than subtly revealing their existence, is tacitly regarded as an ethical and aesthetic duty by architects who have ever visited Jeju Island. To that extent, Jeju's natural landscape is overwhelming. Be that as it may, the existence of architecture cannot give up its whole appointment to the site and to nature. Jeju, the only place where people can experience such a unique climate and

natural environment, inspires a fantasy of another life – so different from Seoul – more than any other place in all of Korea. A variety of projects, such as major company offices, museums, hotels and residential blocks provide a platform for dreaming vastly different from that offered by the metropolis and capital city, amplifying them through architecture. To build a hotel, pension, or a residence in Jeju also means entering a factory of dreams created by the capital and by the tourism industry. While pensions have a spatial layout similar to that of residential estates, they would be regarded unsuccessful if they fail to evoke sense of escape from everyday life. Thus the term pension has emerged in the project lists of architects since it became popular in Korea, as exemplified by buildings such as Min Q.M's House of Mind (2006), Moon Hoon's Rockitsuda (2010), Jeong EuiYeob's Aggrenad (2012), Kwak Heesoo's Moken Resort (2012) and Uretreat (2016). Their works came into the spotlight thanks to deliberate coordination, unusual materials, and the adventurous use of form and colour. In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 it was an unusual programme tolerant of exaggeration and strangeness.

AnLstudio, which has enjoyed 2016 with their win at the Korean Young Architects Award and in their participation as part of the curatorial team for the Venice Biennale, have also adopted a similar position in their L.O.G. project in Jeju of similar conditions. Their task is to place a residence, pension, and cafe for a client who has decided to settle in Jeju. It is the direction in which buildings will face that architects have to decide above all, on a site that commands a fine view towards the seaside, thanks to its location on the hill in spite of the distance. When the sea bears due north of a north-facing slope, all buildings face towards the north. There seems to be no other choice when direction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amount of daylight. They keep this in consideration in order to decide the layout of four buildings and to control the position of windows away from the pine forest in front of the site. Here, building is considered once again as a device to command a fine view. Controlling levels and distances between buildings on the site enables each room and cafe to view the sea through a number of different frames. The gaps between buildings, the roof of the front building, the hill and forest in front of the site play the role of framing to increase the depth of view to the sea. Few would set out a counterview to the fact that L.O.G. have succeeded in applying a work of architecture in order to enjoy the natural spectacle of Jeju.

These may be the methods pursued by

nine out of ten architects, all of whom carry out a project in Jangjeon-ri, Aewol-eup, and most of them will succeed in achieving what they have set out to achieve. Then by what criteria may one determine whether this pension has been successful or not? There may be more than one answer to this question. High reservation rates may matter for some people and touch upon details of the part within one's reach for others. From the viewpoint of 'architecture', however, they are not suitable standards from which to question or answer precisely what the value of 'architecture' may be thought to be. It is true that asking about achievement

'in spite of' a given programme, site conditions, and building budget, rather than 'according to' seems to be an ambitious question of the period, particularly when considering architecture was expected to be autonomous.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to deny the argument that 'parenthesizing' other factors is the precondition by which one may make aesthetic experience and creative decisions work. It is morphology that is at issue when thinking collectively about how we might put aside nature, sea, site, and so on.

Bent and joined up planes can be found here and there across this project and all

of the gable roofs have different degrees of slope. One might think nobody will care anymore, as we are surrounded by all kinds of freeform architecture. However, this project is made of a light wooden structure. Although the wooden structure, a condition requested by the client, indicates the situation of this building by suggesting the correlation of the wooden structure with the explosive growth of the house since 2010, let's put this aside for a while. They deliberately pushed forward the form, which is difficult to realize in a wooden structure. Furthermore, AnLstudio has repeatedly used cubic volumes, which are bent and



Here, building is considered once again as a device to command a fine view. Controlling levels and distances between buildings on the site enables each room and cafe to view the sea through a number of different frames.



AnLstudio starts with a form, a cubic volume that appears solid. According to their methodology, they sketch their favourite form by bending and cutting this cube and inserting programmes into it. In other words, they already have their favourite form before they study sites and programmes.

obliquely cut in a variety of projects without exception, from the Oslo National Museum proposal in 2009 to the pavilion. They pursued their favorite form in Oceanscope (2010) which adopted rectangular container box as form, module and material. In other words, this kind of form is the essence which architects refuse to give up. Even if they say quite simply that they 'placed it on the ground', they actually placed it exactly where they desired.

AnLstudio's works are not based on the floor and plane. They start with manipulating a cuboid. We have to recognize that it is different from space or volume. What Le Corbusier called a volume is something which swells from the inside like soap bubbles. Modernism adopted a method to make exterior forms with firmer planes after organizing the inside within a given volume. So-called postmodernism achieved a few new results in spite of

a series of experiments to overcome modern architecture. Through the image and symbolism of elements and surface, architects tried to attack solid grounding in the hope of escaping from conventional methods. To be precise, it meant the stacked horizontal slab of Dom-ino frame. They began to review the conditions of modern architecture. Beginning with Rem Koolhaas, who mixed and juxtaposed the hierarchy and programme of the ground, they stepped down from elevated, glorious position as a generator of architecture. Once freed from the restraint of the ground, it wa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it was claimed that unit of architecture is not a plane but a volume. FOA made attempts to draw their own phylogenetic diagram for architecture, which starts with the control of the ground and enveloping skin. On the other hand, form has not been welcomed in the Korean architectural world

for a long time. A group of architects who place an emphasis upon abstract space and spirit have regarded this as a by-product acquired by solving more important issues rather than retaining a firm sense of purpose. However, AnLstudio starts with a form, a cubic volume that appears solid. According to their methodology, they sketch their favourite form by bending and cutting this cube and inserting programmes into it. In other words, they already have their favourite form before they study sites and programmes. Their attempts to accomplish their purpose can be found at every corner of the Jeju project and the result seems quite successful. The bending and joining of planes is repeated not only outside but also inside, which makes the whole project consistent in approach and aspect. Though it is regrettable that some details are not fully solved by the wooden structure, their intention can be clearly understood.

Their methodology has not yet revealed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context. They have adhered to their preference and tastes until now. Now, their task is to control and cultivate their taste through a sophisticated positioning and theoretical stance in future projects.

박정현은 AURI인문학포럼 논문 대상과 제3회 와이드AR 건축비평상을 수상했다. 『전환기의 한국건축과 4·3그룹』(공저)을 썼으며, 『포트폴리오와 다이어그램』 등의 책을 옮겼다. 도서출판 마티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Park Junghyun won the first prize of AURI Humanity Forum Thesis and the third Wide AR Architectural Critics Awards. He is the coauthor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transition period and 4.3 Group* and translated *Portfolio and Diagram* into Korean. He participated in 'Out of the Ordinary' exhibition as a cooperative curator and now he is the editor-in-chief of Matibook.